



노래로 생애 최고의 날을 꿈꾸다

전주여성합창단, 송하진 지사상 · 마음모아합창단, 김승수 전주시장상
임실군청합창단 · 군산아리울합창단, 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상



전

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대회가 지난 6일 오후3시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단법인 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도와 전주, 전주매일 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군산아리울 남성합창단, 벨라보스 여성합창단 등 도내 7개 남성, 여성 합창단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중년의 어버이 합창단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대회에서는 정희갑 탈렌트겸 뮤지컬배우의 사회로 어니언스의 포크송가수 임창제와 '어리도가야하 나의 가수 박영일이 초청되어 방청객들과 참가팀 및 행사진행을 맡은 전주매일신문 관계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상에는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를 부른 전주여성합창단이 송하진 도지사상을 받았으며, 금상으로 마음모아합창단이 '우리는'을 불러 김승수 전주시장상을 받았고, 은상으로는 임실군청합창단과 군산아리울합창단이 트로피와 함께 전주매일신문 조봉성대표상을 받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로 두번째를 맞은 아리울 어버이 합창대회가 전라북도 문화예술인과 합창동호인들의 합창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는 물론 문화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합창은 서로다른 소리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며 "오늘 대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합창을 통한 교감과 소통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후원한 전주매일신문사 조봉성 대표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가 많이 있지만 사람의 목소리아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아닐까 한다"며 "도내 어버이 합창단 여러분들의 큰 발전을 기원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드린다"고 말했다.

대상을 받은 전주여성합창단의 장은나씨는 "어릴적 꿈이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가정주부이자 회사원으로 열심히 살며 합창단 단원으로써 그 꿈을 대신 하고 있다"며 "입상여부를 떠나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여겼었는데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대상까지 받게되어 생애 최고의 날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심사를 맡은 강재수 심사위원장(전남 광양 시립합창단 지휘자)은 심사기준에 대해 "첫째, 노래하면서 얼마나 표정이 즐거운지, 둘째, 곡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연습이 되었는지 여부, 셋째, 각 파트별로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심사평을 말했다. /송효철 기자

